



코끼리가 짖어요

글 박준희, 그림 한담희 / 책고래



서로가 어색하고 서툰 1학년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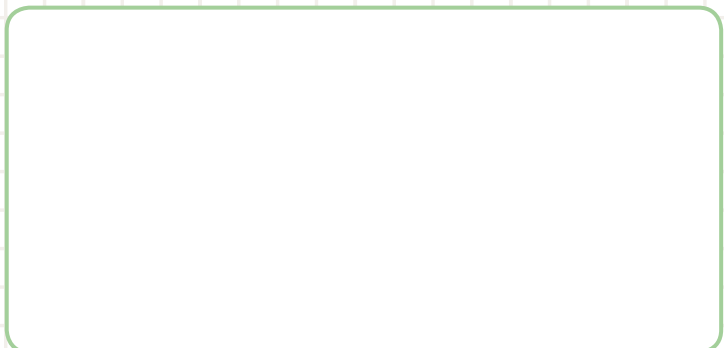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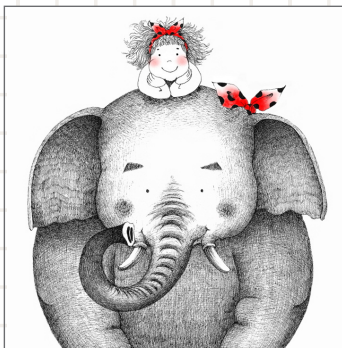
코끼리를 단짝 친구로 둔 수지 이야기예요. 수지는 코끼리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도 엄마 몰래 코끼리를 학교에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그만 코끼리가 교실 문에 꽂혀 버린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던 수지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나서서 있는 힘껏 밀었지만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코끼리는 문에서 빠져나와 교실로 들어갔을까요? 또 수지는 학교에서의 첫날을 잘 보냈을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벅차고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두려워요. 더구나 갓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해요. 길을 잃지는 않을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학교로 향하는 순간부터 교실 문을 지나 자리에 앉기까지. 아이는 몸도 마음도 한껏 움츠리고 있을 거예요. 별것 아닌 실수도 ‘코끼리가 문에 낀 것’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로 여겨지지요. 평소 당찬 아이도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고 울음보가 터진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고 여유 있는 눈길로 아이를 살펴야 하지요.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이 달라지니까요.

《코끼리가 짖어요》는 아직 서로가 어색하고 서툰 1학년 아이들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모으고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코끼리와 수지, 그리고 수지네 반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1학년 아이들은 물론, 무언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후 이해 활동

- ❶ 수지는 학교 가는 첫날 코끼리와 함께 갔어요. 내가 수지처럼 학교에 데리고 가고 싶은 동물이나 인형이 있을까요? 예쁘게 그려보아요.



- Q 코끼리의 엉덩이가 문에 꼭 끼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당겼어요. 나도 응원가를 만들어 불러 힘을 합쳐 볼까요?

나 비 야

플라셀 독일민요

예) ○○야, ○○야 이리빨리 오너라
친구들을 모아서 어서어서 오너라
코끼리가 끼었네 너도나도 손잡고
엉덩이 빠져라 영차영차 힘내자

독후활동 이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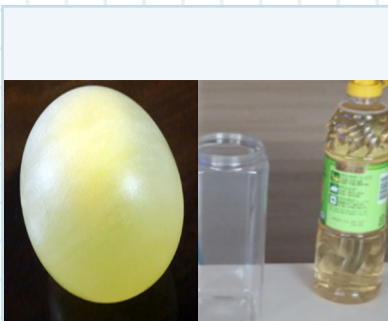
- Q 굴러라 굴러라 얹! 친구의 구슬이 코끼리를 구했네요. 우리도 친구들과 구슬치기 놀이를 해 볼까요.



〈구슬치기 하는 법〉

구슬을 맞히기 위해 놓여 있는 상대방의 구슬을 향해 서서 던지거나, 손가락을 튕겨 상대방 구슬을 향해 다른 구슬을 친다. 여럿이 팀을 짜서 할 수도 있고, 개인끼리 할 수도 있다.

- Q [달걀 탕탱볼 만들기] 친구의 구슬처럼 탕탱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재미있는 과학 실험도 해 보아요.



〈달걀 탕탱볼 만드는 법〉

- ① 신선한 달걀과 식초, 입구가 넓은 통을 준비해요.
- ② 달걀을 통에 넣고 식초를 가득 부어주세요.
- ③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달걀 껍질이 녹기를 기다려요.
- ④ 껍질이 다 녹았으면 통에서 꺼내 깨끗이 씻어 주세요.
- ⑤ 살살 요리조리 굴리며 재미있게 놀아요.

*달걀 껍질의 탄산칼슘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만나 녹는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랍니다. 삶은 달걀은 안돼요~~~